

민사소송법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2020. 5. 1. 평소 물품 거래 관계에 있는 乙에게 6개월을 변제 기한으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11. 10.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乙은 이미 물품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甲의 변제요구를 거절하였고, 나아가 2020. 11. 16. 甲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며, 관할의 문제는 따지지 않음) (총 30점)

- 1) 甲은 乙이 제기한 소의 소장을 송달받고, 乙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소제기는 적법한가? (10점)
- 2) 甲은 乙이 제기한 소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乙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2020. 12. 1. 제1회 변론기일에 乙은 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고 甲은 그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2020. 12. 29.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甲이 반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는데, 乙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반소 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甲은 자신의 자(子)인 乙,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를 자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A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소의 제기 및 제1심 절차의 수행, 그리고 제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항소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A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소를 제기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A는 甲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甲, 乙, 丙을 공동원고로 표시하여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에 대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甲, 乙, 丙을 당사자로 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5점)

- 1) 甲에 대한 판결부분의 효력이 乙, 丙에게도 미치는 이유와 乙, 丙이 甲에 대한 판결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밟아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0점)
- 2) 제1심판결 선고 후 甲의 상속인 乙, 丙이 법무법인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B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甲 패소 부분에 대하여 甲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부적법한 항소의 치유방법을 설명하시오. (15점)

제 3 문. 甲은 乙 소유의 A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의 피용자인 丙과 체결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甲은 乙에게 A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丙에게 A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면서 A 토지 인도를 거절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5점)

- 1) 甲은 丙이 무권대리인이라면 丙의 사용자인 乙이 3억 원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乙을 피고로 배상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은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15점)
- 2) 甲은 乙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A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무권대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제1심 법원은 丙의 자백만을 근거로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